

카드 연체 · 한도초과 미리 알려준다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안 11월부터 시행

카드 이용정지 · 한도축소 · 해지시 사전 통지

대출금리변동 · 금융투자상품 가격변동 위험 등도

랩 어카운트는 일정한도 이상 수익률 변동사실 등



갤럭시 노트 7 구하러 최근 싱가포르 웨스트게이트(Westgate) 몰에 위치한 삼성 스토어에서 제품 구매를 위해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11월부터 연체 등으로 카드 이용이 정지되거나 한도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되면 카드사는 해당 사실을 제때 알려야 한다.

또 투자자의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ELS(추가연계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가격변동 위험 등에 대한 알림 서비스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카드 이용정지 · 한도 축소 · 해지시 사전 통지 ▲대출 우대금리 적용조건 미충족시 SMS로 즉시 통지 ▲투자상품 손실확대 위험 등 알림서비스 강화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납부세금, 예상연금액 통지 등이다.

현재 카드사는 이용정지 · 한도 축소 · 해지시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사후고지(3영업일 이내)만 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불편이 발생했다.

카드사가 카드이용을 정지시키는 건수는 작년 기준 연간 1623만건으로 일평균 4.5만여건에 달한다.

11월부터 카드사가 이용정지 및 한도축소를 할 때에는 사전에 예정일 · 사유 등을 고객에게 SMS,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특히 카드 직권해지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0영업일 전에 고지토록 개선했다.

또 일부 카드사만 시행한 승인 거절 알림서비스도 확대해 한도초과 등에 따른 카드 승인거절 사실 등을 고객에게 SMS로 즉시 통지토록 했다.

은행권은 대출금리 등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손질한다.

대다수의 은행 · 저축은행은 전월 카드이용 실적, 공과금 등 자동이체 실적 등을 충족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대금리를 적용받던 고객이 카드 이용실적 감소 등으로 혜택을 못 받을 때 이를 알리지 않아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존재했다. 앞으로는 금리변동 사실 및 사유를 SMS · 스마트폰 앱 ·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ELS(추가연계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가격변동 위험 등에 대한 알림 서비스도 강화한다.

현재 증권사는 낙인(Knock-In, 원금 손실 구간) 옵션이 있는 ELS 상품만 낙인진입 사실을 알리고 있다.

앞으로는 낙인옵션 없이 만기일(또는 중간평가일) 지수로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낙인 상품도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시 손실발생 수준보다 하락

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지한다.

자산관리계좌인 랩 어카운트(Wrap account)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일정한도 이상 수익률 변동사실 등을 SMS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계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통지내용에 중도해지시 납부세금 및 예상연금액 등 중요정보를 추가하도록 손본다.

이밖에 대출 기간 중 취업 · 소득 증가 등으로 고객의 신용상태가 크게 개선된 경우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만기보통금 발생사실은 우편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알리도록 했다. /뉴스

‘카카오 드라이버’ 요금 입력 추가

기본요금 지역별 차등화 · 기사회원 맞춤기능도

카카오가 대리운전 호출앱 ‘카카오 드라이버’ 기능을 대폭 손질했다.

카카오는 카카오 드라이버에 요금 직접 입력 기능을 추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사회원은 이용자가 제시한 요금을 보고 호출 수락 여부를 판단한다.

카카오는 카카오 드라이버의 기본요금도 지역별로 차등화했다. 서울 · 수도권은 1만5000원이지만 지방은 도시별로 가격을 낮췄다.

지난 6월 1일 출시된 카카오 드라이버는 기본요금 1만5000원으로 비싸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 기사회원 맞춤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 기사회원이 일정 범위 안의 호출을 모두 보는 ‘콜리스트’, 기사회원이 선호하는 목적지를 설정해 콜을 우선적으로 받는 ‘선호 지역 우선 배정’ 기능 등이다. 기사회원 확보가 중요한 대리운전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뉴스

19금 없는 ‘카카오페이지’ 성장 비결은

비독점 제안 등 콘텐츠 확보 노력... ‘분절’ 등 이용자 확보 성과

카카오가 콘텐츠 유통 사업을 강화하면서 유료 콘텐츠 플랫폼 ‘카카오페이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페이지는 카카오 계열사 포도트리가 운영한다.

최근 열린 2분기 실적발표회에서 임지훈 카카오 대표는 카카오측 뉴스 서비스 ‘뉴스톡’ 도입, 글쓰기 플랫폼 ‘브런치’ 활성화 등의 콘텐츠 신사업 소개하며 카카오페이지의 성공 사례를 언급했다.

카카오는 다음웹툰을 9월 1일부터 포도트리 사내독립기업으로 이전하는 등 포도트리를 콘텐츠 사업의 방항타로 삼고 있다.

포도트리가 이처럼 카카오의 중추가 된 힘은 바로 카카오페이지다.

카카오페이지는 웹툰과 웹소설뿐 아니라 정통 문학 등을 판매하는 유료 콘텐츠 플랫폼이다. 포도트리는 카카오와 함께 2013년 4월 카카오페이지를 야심차게 선보였다.

하지만 출발은 순탄치 못했다. 부족한 콘텐츠, 홍보 미흡, 불편한 콘텐츠 등록 시스템과 결제 방식 등이 문제였다.

그러나 온갖 악재를 딛고 카카오페이지는 서비스 3년만에 하루 평균 거래액 2억5000만원을 기록하는 카카오의 알짜 콘텐츠 사업으로 발돋움했다.

포도트리는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원점부터 사업을 재경비했다. 작가와 출판사에 “다른 플랫폼에 작품을 올려도 좋으니 카카오페이지에도 작품을 올려달라”고 비독점 제안을 했다.

작가들이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조건없이 늘린 것이다. 작가들의 연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기간 · 단발 계약도 활성화했다. 유료 콘

텐츠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행보였다.

이용자를 겨냥한 다양한 부가 기능도 만들었다. 일정 시간 기다리면 유료 콘텐츠를 무료로 볼 수 있게하는 ‘기다리면 무료’, 스마트폰 액정에 맞게 콘텐츠 길이와 호출을 쪼개는 ‘분절’, 수시로 카카오페이지 캐시를 증명하는 플렉스형식의 이벤트 ‘캐시 뽑기’ 등으로 고정 이용자를 확보했다.

황 이사는 “콘텐츠 분절 기능을 도입할 때 작가들에게 ‘왜 쪼개느냐’고 항의를 많이 받았다. 하지만 ‘분절’을 해야 모바일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부담이 줄어든다’며 설득했고, 분절 콘텐츠 매출이 증가 이례는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분절해 글을 써주신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지의 가장 큰 특징은 19금 성인물이 없다는 것이다. 대다수 유료 콘텐츠 플랫폼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성인물에서 얻는다.

황 이사는 “19금 콘텐츠는 매출을 올리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지만 카카오페이지는 당장 도입할 계획이 없다”며 “19금 없이도 성장해왔고, 19금 외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콘텐츠 시장을 만들어주는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콘텐츠 유통 서비스는 결국 양질의 콘텐츠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성패가 갈린다.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이용자는 자연스럽게 몰린다”며 “독자는 정말 보고 싶은 콘텐츠에는 지출을 아끼지 않는다. 카카오페이지는 한창 성장 단계이지만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웹드라마 등의 동영상 콘텐츠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꿈의 미있는 수치료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구글 지도 반출, 정부 선택은

승인시 ‘특혜’, 불허시 ‘기술 발전 역행’ 논란 일 듯 1차 회의 불허 주장 우세...내일 최종 결정 주목

구글에 대한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 반출이 오는 24일 결정된다.

2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는 24일 측량성과(지도) 국외반출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며 “회의 결과는 당일 오후 6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달 1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지도 등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단 관계부처가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를 열고 국외 반출을 결정할 경우에는 허용된다.

같은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청 60일 이내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글의 경우 오는 25일이 법정시한이다. 정부는 지난 12월 2

차 회의를 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8일 국회 정책토론회 의견 추가 검토 필요 등을 이유로 연기했다.

어떤 결론이 나든 후폭풍이 불가피해 정부의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반출 승인시 ‘특혜’ 논란이, 반출 불허시 ‘갈라파고스(기술 발전 역행)’ 논란이 예상된다. 지도 반출 불허는 무역장벽이라는 미국 정부 차원의 압박도 부담이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출을 불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글

이 반출을 신청한 지도 데이터는 SK 텔레콤이 보유한 것으로 국가안보상 민감지역 정보가 모두 삭제돼 그 자체로는 큰 문제는 없다.

단 구글이 해외에서 제공 중인 위성 이미지와 결합될 경우 민감지역 정보가 노출돼 안보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다. 정부는 반출 조건으로 위성 이미지에서 민감지역 정보 삭제를 요구했지만 구글은 부정적이다.

구글의 ‘조세 회피’ 논란도 반출을 가로막는 요소다. 구글이 지도데이터를 보관할 서버를 외국으로 가져가려는 이유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서버)

를 두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을 국내 IT업계는 제기하고 있다.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이 사실상 국내 행정기관의 규제가 불가능해 국내 업체와 역할 분담도 거세다.

아울러 태동단계인 국내 지도 데이터 기반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불허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구글은 지도반출 금지로 온라인 장터, 차량 공유 서비스, 증강현실 게임 등 세계적인 혁신 기조에서 한국이 배제돼 ‘갈라파고스’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는 등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미국 정부 차원에서 무형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뉴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